잇따른 민간교류…북·미 관계 훈풍 부나

뉴욕 필 초청-北 공관원 워싱턴 나들이 등
美 정부 지원 속 비공식 교류 일제히 '물꼬'

북핵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꽁꽁 얼어붙었던 북한과 미국간의 비공식 교류도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북한이 뉴욕 필 하모닉의 평양 공연을 초청하는가 하면 북한의 뉴욕 유엔대표부 가족들이 이례적인 워싱턴 나들이에 나서고, 북한 태권도 선수단은 다음달 미국 시범공연을 펼친다.

또 다음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권투선수권대회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선수 3명이 출전하며,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미국 시라큐스 대학과 북한 김책공대간 정보기술 인력 교환 프로그램도 재개됐다.

이에 앞서 미국 과학진흥협회는 지난 2월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월에는 민간연구개발재단과 과학진흥협회가 워싱턴에서 시라큐스대, 스탠퍼드대, 코넬대, 비정부기구,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미 국무부 관계자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북미 대학 간 과학협력을 주제로 한 비공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북한과 미국간의 이같은 민간차원 또는 비공식 교류는 6자회담의 진전과 함께 일제히 물꼬가 트인 것으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꺼려왔으며, 북미간의 비공식 교류에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음을 실감하게 한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허가없이 뉴욕 반경 30마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의 외부 나들이를 거의 허용하지 않아 왔으며, 2년전 한성렬 당시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강연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비공개 발언만 하라는 등의 까다로운 단서를 붙였었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김명길 차석대사가 한 비정부단체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려 하자 선선히 허락했으나 북한측 사정으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엔 유엔대표부 공관원 가족들의 대규모 워싱턴 나들이가 성사됐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양국 관계정상화에 필수적인 신뢰구축을 위해 북미간의 비공식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상은 이런 차원에서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미 국무부는 실제 초청이 이뤄지자 뉴욕 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태권도 선수단의 미국 시범공연 역시 작년에는 미 국무부측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올들어서는 '빨리 비자를 신청하라'고 재촉했다는 후문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불타버린 학교 태국군 장병들이 10일 무슬림 다수 거주지역인 태국 남부 파타니주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지른 불로 타버린 학교를 살펴보고 있다. 이 지역에선 거의 매일 발생하는 폭력사태로 올들어서만 2천500명이 사망했다. /AFP=연합뉴스

"아프간 인질 구출작전 준비했었다"

軍, 정예 대테러 요원들 피랍 직후 카불 급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억류됐었던 한국인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적 차원의 구상에 대비, 우리 군의 대테러 전문부대 정예요원 여러 명이 카불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군당국이 탈레반에 억류됐던 한국인 구출을 위한 제반 군사적 구상을 준비하면서 군의 대테러 정예요원 여러 명을 카불로 급파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군사적 차원의 구출계획 구상을 위한 인질 억류지역의 지형정보와 탈레반 무장세력의 동향, 무기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군은 항상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라며 "특히 한국인 23명이 납치된 상황에서 군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합참은 탈레반 무장세력이 인질들을 살해할 것에 대비해 카불의 정예요원들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개념상의 인질구출 계획을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미군과 국제안보지원군(ISAF) 병력들이 외곽을 엄호하면 수송기로 급파된 특전사 대테러전문 요원들이 억류지역에 투입돼 인질을 구출한다는 시나리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자여권 소지자만 미국 무비자 입국" 내년 여권대란 우려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내년에 VWP에 가입할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차례의 여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VWP에 가입할 경우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 등 여권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허용하되 기존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현행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北-건설부지·노동력 제공, 中-자금·건설자재 지원
신의주에 대규모 물류센터 추진

북한과 중국이 신의주에 공동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의 대북소식통들은 9일 "북한이 신의주에 '조중(북중)우의물류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중국측에 제안함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측은 이미 중국측 투자회사를 선정해 투자협의서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영석 북한 조선상업회의소 서기장은 지난 3일 중국 창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신의주특구 재추진설을 일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소소한 물자를 조달하는 차원에서 신의주 일부 지역에 조중우의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조선족 사업가 J씨는 "양국의 교역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화물통관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신의주세관이 워낙 비좁아 그간 대체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물류센터 건립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건설은 중국측이 자금과 건설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이 건설부지와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시 곁엔 아내와 애견만 남았다?

이라크戰 놓고 민주당과 대격돌 예고…레임덕 가속화

"내 곁에 아내와 애견만 남는다 해도 이라크에서 승리를 관철할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 의원 등 이라크전 비판론자들을 향해 쏟아낸 독설이다.

아내인 로라와 백악관에서 키워온 애견 두마리 스팟과 바니만 자기 곁에 남는다 해도 이라크전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를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그런 '불행한' 예견들이 점차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주 이라크전 주둔 미군의 증원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고, 미국 내 여론도 점점 악화돼 부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부시와 임기를 같이할 것으로 예견됐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낙마하거나 자의 반 타의 반 사퇴하고, 한때의 부하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핵심측근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사임한 것을 비롯, 폴 울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에 이어 최근엔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마저 중도 하차했다. /연합뉴스

정부 "아프간 피랍, 구상권 행사 안해"

피랍자 숙박·운송·운구비만 청구키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해결에 소요된 정부 예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석방된 피랍자들의 운송 등에 소요된 실비만 피랍자 측에 정산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문제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무관한 만큼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비용상환 청구' 차원에서 일부 소요 경비를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용상환 청구 대상은 석방된 피랍자의 귀국 항공비용 및 숙박료, 희생자 운구비 등 실비로 정했다"면서 "석방교섭 관여자 출장비 등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청구할 비용의 세부 목록은 석방된 피랍자들이 카불.두바이 등에 체류했을 때 발생한 숙박료, 카불~두바이(또는 뉴델리)~인천공항의 경로로 입국하는데 소요된 항공료,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 등 희생자 2명의 운구 비용 등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청구 금액 산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피랍자들의 소속 교회인 분당 샘물교회 또는 피랍자 가족 측에 해당액을 정식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프간, 첫 라마단 특사 탈레반 포함 22명 석방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오는 13일을 전후로 시작되는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이슬람력의 9번째 달로 단식월)을 앞두고 첫 특사를 단행했다고 아프간 정부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사법당국의 고위 관리인 압둘 할리크가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아프간 정부가 헬만드주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 죄수 22명을 석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 22명 가운데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과 1대1로 교환하자고 완강히 고집했던 탈레반 수감자 8명이 한 명이라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할리크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두바이=연합뉴스